

# 싱글PPM 품질혁신 지방순회 설명회

## 포천상의, 동아전장(주) 원종영 부장의 우수사례 발표도



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포천여성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싱글PPM 품질혁신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인만) PPM 품질혁신 추진본부 전문위원은 지난 2일 포천여성회관 2층 강 의실에서 강박욱 대한상의 싱글 PPM 품질혁신 추진본부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싱글PPM 품질혁신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

했다. 중소기업청, 싱글PPM 품질혁신 추진본부와 포천상의 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는 40여명의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주요 강의 내용은 ▶싱글PPM 품질인증사업▶싱글PPM 유공자 및 단체 포상 관련사업▶싱글PPM 홈페이지 운영사업▶품질혁신 e-mail 교육사업▶품질혁신정보 KIT 보급사업▶중소기업 품질향상 소프트웨어 (QISS) 보급사업▶싱글PPM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싱글PPM 품질인증요령 등이다.

한편, 이날 강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동아전장(주) 원종영 부장의 우수사례 발표를 끝으로 싱글PPM 품질혁신 지방 순회 설명회를 마쳤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공공기관 200여개 집단 지방이전 추진 기업도시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200여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이들 기관 중 상당수는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책으로 충청권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현재 결정에 따라 충청권 경제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높거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 200여개를 가능별로 묶어 집단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토균형발전 시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기업도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 특별법” 도입도 제정, 사업 시행 기업에게 제

한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학교, 병원,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도 인정할 방침이다. 토지수용은 지자체가 대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50%를 확보 후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기업이 설립한 학교와 병원은 비영리 법인 전환을 허용한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은 인프라자로서 간접 환수한다. 전문기관의 검증을 바탕으로 약 70% 정도 수준에서 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에 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간선도로를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9개축에 걸쳐 총 6160Km를 구축한다.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축 보강에 주

력할 계획이다. 철도는 경부축 집중을 벗어나 전라선, 경전선 복선전철화, 동부부선과 저진간 448Km 철도연결 등을 추진한다.

# 6면 중소기업 우수제품(QS) 제도 개선...중기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우수제품(QS) 인증제도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제품의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인증업체가 수시로 기술지도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기청은 제품검사 기준 심의를 강화하고 인증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7개 시험연구원의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기술지도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등에 대해 사안별 중요도에 따라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을 하도록 관리규정을 보완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은행권 중소기업 살리기 나섰다

## 기업은행 운전자금 만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하나는은행 등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대출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일시상환 운전자금 만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분할상환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에 부담을

느껴 온 4만여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아울러 3년 만기 특별자금 3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경영안정에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풀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신규대출 1조원과 우대금리 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나은행은 먼저 내년 2월까지 신규 거래 기업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금리보다 0.5~0.7%포인트 낮은 연 4.53%, 무역금융은 1%포인트 낮은 연 4.23%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1조원을 지원

하기로 했다.

또 기존 거래업체 중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10억달러(1조1086억원 상당) 한도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기존 원화대출을 외화대출로 바꿔줘 1.5%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도가 우수한 주 거래 중소기업에는 5000억원 한도에서 어음을 할인할 때 0.5~0.6%포인트가 낮은 연 4.3%의 금리를 적용한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조원의 자금을 풀기 시작했으며 내년 6월 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1조8000억원에 대해서도 만기를 1년 연장해 주고 있다. 또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내린 데 이어 추가로 0.5~0.8%포인트 내렸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제일스티로폴

## 각종 스티로폴, 포장재, 완충재 생산



대표 김복현

스티로폴업계 20년간 외길만을 고집해온 제일스티로폴(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161-2, 대표: 김복현)은 품질제일주의와 고객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형태로의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로 각광받고 있다(사건현상기 포장, 카세트 포장, 브라운관 운반 포장, 디스플레이 포장 완충재 등).

일반 부품운반상자로는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며 기계부품 등의 파손이 우려되는 제품의 포장용, 수분이 흡수되지 않으므로 부식이 우려되는 제품의 포장용, 복잡한 모양을 한 제품의 포장재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자동차 부품, 정밀기기, 4륜호일 KD용 파렛트, 전자부품 등). 농·수·축산물 분야로는 우수한 단열성으로 인하여 보온보냉효과가 뛰어나며 내수성 내균성이 우수, 오랜시간 신선도 유지, 가볍고 견고, 특수설계가 진공포장이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갈비정육 및 과일상자, 어상자, 수경재배용 BED 및 육모상자, 구멍판, 서빙보드 등). 언제나 내실 있는 기업을 추구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불량률 제로화에 도전하며 제품생산에 최선을 다하는 김 대표의 “최근들어 내수부진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스티로폴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가격대가 낮은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으로

#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불량률 제로화 경제를 살찌우는 소중한 재활용으로 사용

제일스티로폴은 1987년 창시 이래 금속석유화학(구.한남화학)과 제휴하여 각종 스티로폴, 포장재, 완충재, 농·축·수산물 박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고객요구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서 제일화학으로 출발한 제일스티로폴은 1991년 (주)자네트시스템 우수협력업체 선정, 1999년 (주)카스 우수협력업체 선정되었으며 2001년 현재의 위치에 자본금 23억5천만원으로 공장을 신축 이전했다.

(주)인터엠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되는 영예와 전체 생산라인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 그동안 쌓아온 기술, 전통, 신용을 바탕으로 스티로폴업계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제일스티로폴이 생산하고 있는 산업용 OA 포장재는 제품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고가의 전기, 전자 제품 포장 완충재로 사용되며 낙하 충격에 의한 제품의 파손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놀라운 충격 흡수성을 자랑한다.

또한 용도에 따른 다양한 발포 및 자유로운

주문량이 많아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려움을 설명한다.

또 “협력업체가 원하는 가격, 납기, 양질의 스티로폴생산을 위해 15명의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본인도 직접 영업 일선에 나서고 있다”고 최근 경기 약화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체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김학기부장은 “최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마진폭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지만 생산제품의 가격 상승을 업체에 요구하면 협력업체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원자재값이 안정되고 경기가 호전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때 산업용 폐기물로 멸시를 받았던 스티로폴이 액자케이스, 비디오케이스, 문구류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최근에는 경제를 살찌우는 소중한 재활용으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문의 031)633-4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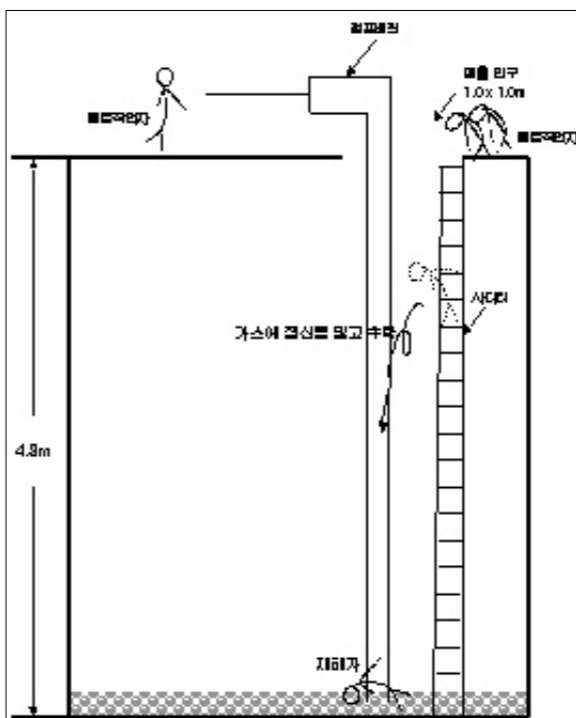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제일스티로폴은 1987년 창시 이래 각종 스티로폴, 포장재, 완충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 산업안전사고 예방

## 정화조실에서의 유해가스 중독



0000년 9월 10:20경, 00시 소재, 00점의 지하3층 정화조실 방류조에 설치된 수중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근로자 4명이 펌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하고자 사다리를 타고 정화조실 방류조 내부로 2미터 정도 들어가다가 오수에서 발생된 황화수소 및 일산화탄소 등이 중독된 후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유해가스, 산소농도 측정 미실시 및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보호구와 기타 보호구 미지급, 둘째 정화조실 실내에 전체환기장치(급·배기시설)는 설치되어 있으나 충분한 환기 미실시, 셋째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안전작업 방법을 주지시키지 못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전체환기시설(급, 배기 시설) 확보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대피용 기구 비치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방법을 주지시킴 ▶작업 시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소

031)826-6091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8/10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Q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꼭박박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 받지 못하고 있다.

홍길동씨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8/108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라 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전전자,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공제대상사업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자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의정부의 세무서 031) 870-4252

자료제공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